

생면부지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 기증

육군 25사단 천동포병부대 김정운 중사 화제

쌀쌀해지는 날씨에 이웃 간의 정이 그리워지는 계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면부지의 백혈병 환자에게 선뜻 골수를 기증한 부사관이 있어 병영 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25사단 천동포병부대 차량장비반 김정운 중사(31세)다. 김 중사는 지난 2004년 부대를 찾은 한혈차에서 골수 기증에 대한 짧은 교육을 받고 기증신청서를 작성, 한국 조혈모세포(골수)은행협회에 골수 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었다.

올해 6월 협회로부터 유전자 일치하는 40대 백혈병 환자(女)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증의사를 전하였다.

아내와 4살 된 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 중사는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의 건강이 얼마나



25사단 천동포병부대 차량장비반 김정운 중사(31세)와 아들.

중요하지 절실히 느꼈다"며 기증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김정운 중사는 6월 중순 조직적

합성항원(HLA)형 검사에서 최종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8월29일부터 하루 한 번 골수 촉진주사를

맞으며 골수기증을 준비했다.

9월3일 드디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팔의 정맥혈에 유도된 골수를 채취(200ml)해 환자에게 이식했다. 김 중사의 선행은 지난달 9월23일 조혈모세포 기증협회에서 감사패와 기증확인서를 부대로 보내오면서 알려졌다.

일주일 정도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하게 복귀해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김 중사는 "작은 선행이 크게 알려진 것 같아 오히려 부끄럽다"며 "골수를 이식 받은 환자 분이 하루 빨리 완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13일 골수협회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골수를 기증 받은 환자는 회복 중에 있다고 한다. 김 중사의 얼굴에 어느 때 보다 환한 미소가 번진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젊은 날의 열정, 패기 모두 이곳에!

육군 제72보병사단 제7회 올림픽축제 개최

육군 72사단은 10월13일과 14일 양일 동안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고 부대 장병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올림픽축제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수색대대 장병들의 멋진 특공무술시범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축구, 족구, 줄다리기, 씨름 등 각종 경기가 펼쳐져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재치있고 패기 넘치는 응원전이 더해져 부대 전 장병이 하나 되어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부대는 축제기간 동안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병장 한편에서는 예하 부대별로 풍물시장을 운영해 미리 준비해온 음식 재료로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해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14일 저녁에는 사단 장병과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군악연주와 동아리 발표회를 관람했다.

이번 축제를 위해 25사단 군악대가 초청되어 Ascentium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45분 동안



육군 72사단은 10월13일과 14일 양일 동안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고 부대 장병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올림픽축제를 개최했다.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려주어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이어서 치열한 경합 끝에 선발된 8개 동아리가 무대에 올라 밴드, 뮤지컬, 풍토, 난타 등 다양한 장르에서 끼와 젊음을 마음껏 펼치며 신선한 가을밤을 뜨겁게 달구었다.

축제를 준비한 안길호 중령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 장병과 군인가족이 함께 맘 풀리고 즐기는 가운데, 전 부대원이 지휘

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축제를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림픽축제는 올림픽부대라는 부대에칭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연2회 열리고 있으며 제7회 짝을 맞고 있으며 2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체육대회와 동아리 발표회가 개최된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여성들의 여가선용 잠재능력 향상

양주시, 여성 기·예 경진대회 개최

양주시는 10월14일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춘민 양주시장, 박종식 시의회의장, 이정희 여성단체협의회장, 참가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양주 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여성 기·예 경진대회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연말의 기량을 통해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기 위해 개최된 금년 행사는 민20세 이상의 여성으로 읍면동을 대표 할 수 있는 기·예 능력 특기자 88명이 참석 시, 수필, 꽃꽂이, 서예 4개 부문에 출전해 주민자치센터와 각종사회교육 등에서 평소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임춘민 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

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인 만큼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풍부한 함양과 잠재능력을 연마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발전의 주역이 되어서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참여와 동참을 바라며, 아무쪼록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5월29일 제23회 경기도 여성 기예 경진대회에 8개 부문에 참가 컴퓨터부문 우수 이미지제, 시 부문 장려 김용숙씨, 서예 입선 정영미씨, 이주여성 백일장 기갈씨 등 4개 부문에 입상했다. 이날 경연 4개 부문별 시상은 최우수4명, 우수7명, 장려 11명으로 선정됐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양주시는 10월14일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양주 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가졌다.

고객만족경영, 친환경 시설운영 경영목표

연천군시설관리공단, ISO 9001, 14001 인증 취득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10월7일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 취득했다.

2000년4월1일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등 4개 사업장 운영을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한 공단은 지난 5월 문을 연 한탄강 어린이 교룡랜드에 이어 7월 연천군이 199억여원을 들여 새

로 개장한 한탄강 관광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총 8개의 공공시설 및 사업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운영수 이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 공단 운영의 기초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지고, 공단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10월7일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 취득했다.

동두천시, 시정발전 위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발족식

동두천시는 10월13일 시청 상화실에서 오세창 시장, 이덕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도·시의원, 교수, 단체장, 각계 기업인, 관계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시켰다.

새롭게 발족한 미래발전위원회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시의 주요현안사항 보고,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과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주요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해 지역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고 아낌없는 고견과 자문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새로이 사용하게 될 브랜드슬로건이 Do-Dream 동두천인바, 미래발전위원들이 Do Dream 동두천을 위해 시정의 현재와 미래를 거침없이 이야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불우 이웃 100여명에게 연탄 기증

동두천 연탄은행 2007년10월 이후 재개식



동두천 연탄은행이 2008년10월10일 오후2시 중앙동 소재 동두천시 중앙시민 공원에서 동두천 연탄은행 오성환 대표, 오세창 동두천시 시장, 함남선 시의장 및 시의원,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뜻 깊은 연탄은행 재개식을 맞이해 오성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탄은 타고나면 하얀 재 남지 않고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두천 연탄은행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작하고 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성환 대표, 오세창 동두천시 시장, 함남선 시의장 및 시의원,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뜻 깊은 연탄은행 재개식을 맞이해 오성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탄은 타고나면 하얀 재 남지 않고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두천 연탄은행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포천 에이원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에이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육시간 이수후 시험없이 자격증 취득 보장.

교육시간

- ▶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남녀 등의 제한 없음.
- ▶ 등록기간 : 2008.10.13부터 신규 개강 예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160	80	40	40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50	42	8
소지자 (면허)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모집인원

모집	수강료	주·야	모집인원	수업시간	수업시간 (실습포함)
신규 (경력자)	50(40)만원	주간	40명	09:00~18:00	6주
경력자 (신규)	40(50)만원	야간	40명	19:00~23:00	10주
국가자격증소지자	20만원	주말(토)	40명	09:00~18:00	4주

“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007. 8. 3공포, 2008. 2. 4. 시행)

-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 ▶ 광역시, 도지사는 자격을 검증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과정별 구분

- * 신규자: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
- * 경력자: 생활지도원, 가정보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종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이상인 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장,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해당자)